

# 자연 담은 '아중호수도서관' 착공

### 전주시, 아중호수1호광장서 성공적 건립·무사고 기원 착공식 가져... 77억원 투입 10월까지 조성

전주 아중호수에 탁 트인 유리를 통해 호수를 보며 잔잔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도서관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19일 아중호수1호광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중호수도서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아중호수도서관 착공식을 가졌다.

아중호수도서관은 시가 2020년부터 조성 중인 특성화도서관이다. 지상 1층에 연면적 902㎡, 길이 101m 규모의 아중호수도서관은 국내에서 목재를 사용한 호수도서관 중 가장 길다.

도서관 외관은 아중호수 수면과 기린봉 능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곡선으로 기획됐다. 소재는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특성화도서관답게 목재 등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 사용된다.

내부에는 전면 큰 유리를 통해 호수가를 바라보며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과 피아노 연주와 같은 음악을 들으며 예술작품 감상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수유실이나 장애인화장실과 같은 편의공간 등 도서관



전주시는 19일 아중호수1호광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중호수도서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아중호수도서관 착공식을 가졌다.

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해 아중호수도서관 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한 시는 올해 10월까지 국비 28억 원 등 총 7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서관 건립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

이다.

시는 아중호수도서관 조성과 관련, 인근 주민과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아중호수길 급커브 구간을 폐쇄하기로 했다. 대신 이 구간 안쪽으로 생태터널을 조성하면서 도로를 직선화하는

공사도 동시에 벌이기로 했다.

아중호수도서관이 조성되면 옛 호동골 양묘장과 자연생태체험관 등 주변 공간들과 함께 아중호수 일대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20년 전주시청 로비에 책기둥 도서관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학산숲속시집도서관과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올해 1월 다가여행자도서관 등 연이어 특성화도서관을 조성했다. 이날 아중호수도서관을 착공한 것과 별개로 현재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한옥마을 한옥도서관, 동문거리 현책도서관 등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에 맞는 특성화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비전을 선포한 뒤 다양한 특화도서관이 전주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아중호수를 배경으로 생명과 치유, 자연을 담은 가장 생태적이고 아름다운 도서관인 아중호수도서관이 완공되면, 시민과 여행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표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사회복지정책협의회 구성할 것”

###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자금심을 높이는 동시에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신분 안정을 우선으로 추진, 이를 통해 종사자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이 같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완전히 새로운 전주,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위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 탁상행정이 아닌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훈 예비후보가 현실성 있는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발굴을 위해 ‘전주시 사회복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19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복지정책의 전문화 및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신규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전주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전주시 사회복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평가, 신규정책 및 민·관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시민의 욕구 역시 다양해지고 변화하는 만큼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사회복지정책협의회 운영을 정례화, 행정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운영 체계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지위를 강화해

/김윤상 기자

##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전주”

### 시, 복지도시 구현·선도적 복지정책 수립·추진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았다. ‘차이와 차별’의 사이에서,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세상은 한 걸음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확장, 재활의료체계 구축 등 선진적인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로 거듭나고, 전국 지자체 최초 발달장애인 특수직렬 채용, 수어 통역사 채용,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설치 등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다 함께 나아가는 포용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시는 2016년 제1기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재가·시설)의 욕구조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정책 방향 설정 및 예산 증폭 지원방식 등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2021년에는 제2기 장애인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의 성과 및 한계 등을 점검해 다각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장애아돌봄) 서비스 확대·지원, 꾸준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들의 편의와 행복을 우선하는 전주시 융합형 통합돌봄사업, 보건

소내 장애인 의료지원팀 신설, 코로나19 위기 속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생활을 촘촘히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은 물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최근에는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전주’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을 위한 환경조성과 양질의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전주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인 자립을 도모해왔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및 수어통역사를 채용했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이고 전문적인 신규일자(바리스타)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내 카페 설치 사업을 추진, 전주시청을 비롯해 도서관, 공공수영장 등 10개소에 카페가 설치되고 20명의 중증장애

이 고용되어 사회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이들의 큰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애인의 맞춤형 직업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전주시는 한 국가장애인고용공단과 상호협조를 통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장애인 맞춤형훈련센터’를 유치, 전국에서 최초로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장애인 맞춤형훈련센터를 통한 설치하여 직업훈련부터 고용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장애인어울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문화 및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체육, 평생교육, 일자리 등 시설 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체육복지센터’를 건립, 장애인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기반을 다졌다.

그 밖에도 전주시는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및 행동발달센터를 지정하여 사회적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예술공간인 ‘하나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한 사회적 소

통과 연대의 기회를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로 발달장애인의 돌봄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발달장애인 치유농장’ 운영은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활동하며 편견의 벽을 허무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내 장애인의 전통보조기 운행자 보험 가입 지원 및 공공기관 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장애인화 의뢰기관 운영, 장애인 이용편의 친화음식점 확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등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체계 마련으로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평등하게 행복을 누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모든 사람이 한 평도 소외되지 않고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우수한 정책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이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위기극복, ‘우물 안 개구리’ 로는 절대 안돼”

###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협치를 이루어내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음식열 국민의 힘 정권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해 11월 15일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그 날부터 자신은 더 이상 관료가 아닌 정치인 우범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자신을 전주시장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우 후보는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가 원하는 전주시장은 촘촘한 중앙네트워크와 행정력, 예산 확보 역량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여 년 전주의 경제와 일자리, 인구, 소득의 정체와 행정관료 출신의 시장 탓이라고 핑계대며 ‘이런 사람은 안된다’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중앙에서 활동해본 적 없는 우물 안 개구리는 전주가 맞닥뜨린 총체적 난국에 맞서 위기를 극복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며 “새 정권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19일 아중호수도서관에서 열린 개방형 창의도서관 재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인후도서관, ‘특별한 책 놀이터’로 변신

전주시립인후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시민들에게는 힘을 선물하는 ‘특별한 책 놀이터’로 탈바꿈했다.

전주시는 19일 인후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방형 창의도서관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1년간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인후도서관은 정숙성만을 강조하던 기존 도서관 틀을 벗어나 모든 세대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독서와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도서관 1층은 유아 책 놀이터 ‘키움마루’와 어린이 책 놀이터 ‘책마루’, 기자서거, 카페 등 유아와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책 놀이터로

조성됐다.

2층 종합자료실 공간은 인후동의 전망을 볼 수 있는 ‘빛뜰’ 공간과 ‘영화·영상’ 주제 큐레이션 도서를 만날 수 있으며, ‘기억의 서재’, ‘이음의 서재’ 등으로 바뀌었다.

특히, 도서관 속 특별한 영화관인 ‘영화(愛)뜰’은 영화·영상 도서와 자료들을 구비해 책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영화를 보며 쉬는 감동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완산·서신·쪽구름 도서관 등 모든 시립도서관을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조성해 전주를 세계 속의 책의 도시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분수대 가동... 시원한 경관 선사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원한 분수대가 가동된다.

전주시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첫마중길 워터미러와 전주역, 오거리광장 분수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분수대 가동은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시원한 경관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지역 내 광장 분수대를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깨끗한 분수대 수질 관리를 위해 매주 1회 소독과 청소할 방침이다.

전주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경관을 보여줄 것”이라며 “분수대의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쓰레기 불법투기 최대 100만원 과태료

### 전주시, 특별 집중단속 추진·단속 강화

전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6월 말까지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 배달과 택배 주문 등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반은 쓰레기더미에서 나온 고지서와 영수증을 가지고 불법투기자를 찾는 등 단속을 강화해 최대 100만 원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침이다.

시는 차량과 감시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계도 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취약지역환경정비 및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월드컵골프장 ‘고령자 예약 배려 시스템’ 운영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전주월드컵골프장 예약과 관련해 이달 26일부터 ‘고령자 예약 배려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정 비율의 예약 물량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예약 물량이 인터넷을 통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이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골프 인구가 급증한 가운데 월드컵골프장의 예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대부분의 예약 물량이 인터넷을 통해 선점되면서 전화로 예약에 성공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점심시간 제외)의 예약 물량 총 44회분 중 13%에 해당하는 6회분을 고령자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출생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 이용객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예약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주말 예약 물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민희 월드컵운영부장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이용객이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예약시스템 장애 개선을 위해 데이터 서버 교체 및 프로그램 수정을 진행하는 등 이용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